

2020 VOL. 9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U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인사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강성국 소장」	5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광명중학교 윤병훈 교장선생님」	7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원주고등학교 염기진 교장선생님」	9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2
「남춘천중」 교내 학예경연대회	12
「대전봉명중」 우리학교 동아리 활동	15
「광주고」 무등산 야유회	17
「수성고」 우리 학교를 빛내는 20명의 자원봉사자	18
「상동고」 코로나19 잡는 상동고	19
「수원여고」 어울림의 마당, 수원여고	20
「제주제일고」 다문화 가족 돕기 모금	22
「진주고」 2020년 야외탐구활동	23
「호원고」 수해 현장 복구 봉사	24
「황지고」 졸업사진 찍던 날	25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27
「제주제일고」 아름다운 만남(조월 학생)	27
보고싶어요! 선배님	29
「호원중」 자랑스러운 학생회장님 인터뷰(황은규 학생)	29
「동래고」 배움은 늦지 않았습니다(류광석 학생)	31
사랑해요! 선생님	33
「홍성여중」 임광섭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33





우리들의 이야기



시	36
「천안중」 노심을 울리는 비	36
「홍성여중」 희망으로 간다	37
「화명중」 퇴장	38
「동래고」 가을 향기	39
「목포고」 금목서	40
「전남여고」 세월아	41
「수도여고」 시골집 앞마당 이야기	42
수필	44
「남춘천중」 지금부터 시작이야!!	44
「천안중」 보고 싶은 아버지	46
기행문	48
「남춘천중」 가평 자라섬에 꽃놀이를 다녀와서	48
「남춘천중」 춘천 의암호 수난사고 현장 자원봉사	51
일상	52
「전주고」 귀한 책을 선물 받았다	52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55
----------------------------	----



홍보웹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59
---------------------------	----



01

인사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05

-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강성국 소장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07

- 광명중학교 윤병훈 교장선생님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09

- 원주고등학교 염기진 교장선생님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인사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성국 |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렘 가득한 새 학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초록빛으로 우거졌던 나무도 앙상한 나뭇가지로 변한 계절이 왔습니다. 신입생, 재학생 분들 모두 늦어진 새 학기로 인해 하루하루 소중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주말에는 출석 수업을 하고, 평일에는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업이 가끔은 삶의 고단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학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올해는 등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여러 행사가 취소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심각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조금 나아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분들이 졸업 후에도 평생 잊지 못할 학교생활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974년 처음 문을 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느덧 개교 47주년을 맞이하였고,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 처음 개교하여 올해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입학해주셨습니다. 못 다한 학창시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찾아주시는 많은 학생 분들을 보면, 올해도 뜻깊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성별도 나이도 다양하지만, 배움의 꿈을 이루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열정 가득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으며, 학생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 평생학습의 동반자이며 또 다른 삶의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윤 병 훈 | 광명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중 교장협의회장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사연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이렇게 늦게나마 학업을 시작한 만학도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늦었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이제라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다니시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와 열정을 가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은 쉬우나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배움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중도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배움의 여정을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완주를 위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유봉자원방래 불역락호(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함께 공부하는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자가 말씀하신 두 가지 즐거움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배움을 시작했으니 학이시습지를 하는 것이고, 먼 곳에서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니 유봉자원방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이(學而)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운다’는 말입니다. 배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80세의 노인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고, 대통령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배움의 마음이 충만하여 학교에 입학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은 비단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배움은 일어납니다. 요즘은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스마트뱅킹, 화상통화, 내비게이션, 블로그, 카페, 밴드, 메일, 유튜브, 파파고, 쇼핑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도 배우시고 새로운 취미, 운동 등도 배우신다면 좀더 젊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졸업하셔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새로운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배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적어서 아쉬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등교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늘 쓰고 있어야 해서 서로의 얼굴로 못 보고 표정도 못 보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1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은 학우들의 얼굴을 몰라서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전국의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학예경연대회가 없었던 것, 학교에서의 체육대회, 체험학습이 없었던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옛말에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2020년을 나중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회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2021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남은 학창 생활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졸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1,2학년 분들에게는 남은 학창 시절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시도록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염 기 진 | 원주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고 교장협의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언젠가 시작하려거든 지금 시작하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전국에 계신 14,800여 분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실천하고 계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가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아흔한 살의 할머니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는다. 어느 신문사의 헤드라인입니다.

1925년생 김연심 할머니가 안양 사회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안양시민대학에 입학한 것은 2006년이다. 한글 기초를 배우는 병아리반에서 문해(文解·문자해독) 공부를 시작한 그는 지난해 아흔 살에 초등학교 학력 인정반인 지혜반에 진급해 배움의 꿈을 이뤘다.

입학 초기 낙상사고로 6개월 만에 공부를 중단해야 했고, 이후에도 지병인 고혈압과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중간 중간 쉬어야 했다. 그러나 나이와 질병은 그의 열정과 집념을 꺾지 못했고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졸업장을 받게 됐다. 일제 강점기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어려운 형편에도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어머니의 병환으로 6개월 만에 그만뒀야 했다. 한국전쟁 후 격동기를 거치며 배울 기회를 놓친 그는 포목 장사와 하숙업, 숙박업을 하면서 1남 2녀 세 남매를 길렀다. 공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그는 여든 나이에 '학교' 문을 두드렸다.

그는 "이 나이에 졸업장이라니 꿈만 같다"며 "죽기 전에 학교에 다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여한이 없다"고 안양시민대학 최유경 교장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늦깎이 학생들에게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재벌이나 유명한 후손의 재산 다툼을 보면서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공부를 물려주고 싶었다."는 명언도 남겼다.

비록 나이는 들어가지만 김연심 할머니처럼 노년을 활기찬 청년처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 철학자들의 말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지혜란, 비록 외관적으로는 주름이 지고 백발이 늘더라도 거기에 저항하여 내면적인 지성이나 마음가짐, 정신자세가 젊음 그대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젊음의 샘은 당신 자신 속에 있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다. 육체는 나이를 먹지만 육체는 당신 자체가 아니다.”

“최후의 꿈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을 매장하는 외에 취할 방법이란다.”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쾌활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잠언(箴言)’의 시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밝은 마음은 약처럼 몸에 좋으나 실의(失意)는 뼈까지 말려 죽인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마음을 활기차게 자각 시켜야 한다. 과학자의 발견에 의하면 사고력은 연령과 함께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속도(思考速度)가 다소 늦어지게 될 뿐이라고 한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낡은 테두리를 제거해야 한다. 새로운 장소를 찾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살펴보자, 인생의 깊이를 탐구해 보자. 젊음을 유지하려면 정신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생애를 통하여 창조력이 넘쳤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세 때였고, 치치아노는 98세에 몇 가지 걸작을 완성했으며, 홈즈 판사는 90세에 대법원의 판결문을 썼으며, 에디슨은 84세에도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벤 자민 프랭크린은 80세에 미국 헌법의 기초를 돕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젊음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결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위대합니다. “얼굴 표정은 속일 수 있어도 뒷모습에서 풍기는 그 느낌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가족에게 오래 기억되도록 여정을 멈추지 않고 마지막의 열매를 맺도록 정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는 나의 학우들과 서로 아끼고, 보듬어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활동 소개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교내 학예경연대회

이 영 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에서는 학생의 날 기념일을 맞이하여 11월 1일에 교내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송중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도 코로나19로 출석수업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학생회장님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때문에, 학생회장님의 아이디어로, 학우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교내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격하되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덕분에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학예경연대회 개최 전날, 학우들의 멋진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각반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회 준비에 힘써주셨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정성들여서 전시 준비를 해 주시고, 학생회장님과 선배님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생해 주셨습니다. 학예경연대회 준비로 분주한 학우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우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전시장이 멋있게 꾸며졌습니다. 또한, 1·2·3학년 전교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다양한 작품들을 출품하여 전시장이 화려해 보였습니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의 학생분들 중에는 재주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 교복을 입고 수업하기 행사와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준비한 미술품과 서예, 문예부문 수필, 시, 사진 등 경연부분과 공예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장기 자랑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된 한 공간이 아닌 각 교실에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노래, 무용, 시 낭독, 사진, 동영상 등을 방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동안이지만,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은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동안 입어보지 못해 모든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들이 꿈에 그리던 교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개인 사진과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교복에 대한 서러움과 부러움을 함께 풀었습니다. 학예경연대회 하루 동안 교복을 입은 학우들은 마치 여중생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학우들을 보며 저 또한 미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학우는 반백년 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교복을 입어보고, 이런 즐거운 행사를 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행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 학생회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매년 다채로운 학예경연대회 행사가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학예경연대회는 너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소년, 소녀 나이로 돌아가 맘껏 숨씨를 뽐내고, 기념촬영과 각종 공연을 보며 예전에는 못 해본 학창 시절의 아쉬움을 다 채운 뜻있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영자였습니다.

학교활동 소개

우리학교 동아리 활동

김진옥 |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안녕하세요!!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김진옥입니다. 우리 학교의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2020년도 동아리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축소가 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감상반, 컬러링반, 사물놀이반, 문학작품반 등 여러 동아리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운영이 되고 있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아리는 영화감상반입니다. 영화감상반은 학교에서 준비한 영화를 시청한 후 감상 소감과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다른 학우들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 출입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영화감상 동아리를 통해 보고 싶었던 영화도 감상하고, 학우들과 자유롭게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컬러링반입니다. 컬러링반은 다양한 도안을 활용하여 나만의 컬러링북을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처음에 도안을 보면, 내가 잘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색을 칠하면서 도안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면, 뿌듯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며 각자의 작품을 만들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이 멋있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사물놀이반입니다. 사물놀이반은 전통 국악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가락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를 신나게 두드림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흥겨움에 취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는 장단에 맞춰서 장구를 두드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이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동아리는 문학작품반입니다. 문학작품반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 문학 작품을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새김으로서 삶의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갖는 동아리입니다. 문학작품반은 다른 활동적인 동아리와는 다르게 정숙한 분위기입니다. 학우들은 문학작품반 동아리를 통해 집중해서 작품을 읽고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문학적 견해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동아리활동 모습을 살펴보면, 최고의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우들이 개개인의 소질을 발휘하기 위해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2021학년도는 코로나19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알차고 뜻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전봉명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김진옥 이었습니다.

학교활동 소개

무등산 야유회

최 종 관 | 광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광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에서는 그 동안 공부하느라 허약해진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교내 체육대회를 10월 11일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야유회로 대체하여 무등산 국립공원 증심사에 모여 윷놀이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등산 자락에서 자연을 벗 삼아 야유회 겸 심신단련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화는 어렵지만 용기종기 모여 점심도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고 나니 전교생이 함께하는 한마음 잔치가 불가능한 이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고, 학년별로 분산 진행하여 끈끈한 정을 나누지 못하는 자리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취소되었던 여러 행사들도 모두 함께 진행하여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학교활동 소개

우리 학교를 빛내는 20명의 자원봉사자

박 소 현 |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이른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이자 학교를 위해 직접 지원하신 20명의 자원봉사자들도 모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두 팀으로 나눠 1팀은 교문 앞과 운동장에 등교하기 위해 들어오는 차들의 주차안내를 해주시며 교문 앞과 운동장을 주차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2팀은 학교 주변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주워 학교를 쾌적하게 만드시고 등굣길의 학생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며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열어 주십니다.

매번 등굣길마다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 우리 학교를 빛내는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배우는 재미와 학우들과의 즐거운 학교생활로 가득 찬 행복한 학교를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 모든 학생들이 더욱 기분 좋은 등굣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박소현 학생기자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찍은 1팀 사진과 2팀 사진 (20명 중 15명)과 쓰레기 줍는 모습

학교활동 소개

코로나19 잡는 상동고

서 승 희 | 상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3반

여기는 배움의 열기와 정열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부천 상동고 부설 방송고(교장 김성주)입니다.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확산되어 전세계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우리학교도 방역지침에 따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아침 일찍 등교 하시어 모든 시스템을 점검 하고 계십니다.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모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손 소독하기, 발열 검사 등 철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 한 뒤 교실에 입실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담당 선생님들께 존경심은 물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본교 학생 및 방송고 학생 모두가 학교 방역예방 수칙에 불평 없이 철저히 준수 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동고 부설 방송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등교하여 만학의 한을 씻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과 담당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활동 소개

어울림의 마당, 수원여고

김금엽 |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4반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는 1975년 10개 학급으로 개교하여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학년별 4개 학급으로 300여명이 재학 중입니다.

학생들은 10대에서 80대까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습에 대한 열의를 다지며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흘러내린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도 어느덧 지식과 지혜가 쌓여 부족한 배움 때문에 늘 주눅 들었던 과거와 달리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가며 소중한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과목마다 본교 선생님들께서 휴일도 마다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학교 임원들도 학교에서 원활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발열체크, 교통정리, 재할용정리 등 굵은일을 마다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에는 사진반, 기타반, 민요반 등 12개의 동아리반이 있어 매년 10월이면 느티울 축제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큼니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감사하게도 무료급식이 제공되어 모두들 다양한 메뉴로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를 입학하기 전 학교를 둘러보려 교문에 들어서니 “모교는 너를 믿노라”라는 글귀가 새겨진 큰 비석을 보며 제 가슴이 쿵쿵 뛰며 왠지 모를 벅찬 감정과 먹먹함에 ‘꿈에 그렸던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신입생들이 원서를 제출하러 오면서 마스크 쓰고 어린아이를 안고 온 신입생들을 보며 이들이 이 학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지 공감되어 그냥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는 경기도 여성 교육의 자랑스러운 학교로 나날이 발전할 것이며 이 곳에 있는 학생들도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학창시절을 보낼 것입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파이팅!!

여기까지 수원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소개를 마칩니다. 이상 김금엽 학생기자였습니다.



학교활동 소개

다문화 가족 돕기 모금

채만석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지난 10월 4일 출석수업일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웃돕기 모금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젠 우리와 한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해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4일 모금한 현금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찾아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전달해주시라고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학우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라며 말씀드렸더니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심정미 사무처장님께서 너무 감동스럽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잘 전달하시겠다고 고마워하셨습니다.

학교활동 소개

2020년 야외탐구활동

박혜경 |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2반

진주의 자랑스러운 명문고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야외활동 행선지는 진주의 역사인 축석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2020년 3학년은 슬픈 학교생활 인 것 같습니다. 학교 출석도 힘든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노고로 아무런 탈 없이 하나의 행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교생활 또 하나의 추억을 쌓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유등축제 준비로 남강에 띄워져야 할 유등들이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축제들이 취소가 되었는데, 유등축제 또한 아쉽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유등 물결을 볼 수 있을까요?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박혜경 학생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활동 소개

수해 현장 복구 봉사

한혜훈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5반

여름 폭우가 내리면서 마을과 논, 밭, 길이 침수되면서 모든 일상이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호원고 2,3학년 회장님들의 제안으로 호원고 학생회에서 수해복구 현장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집들과 논, 밭이 침수되면서 영망이 되어버린 현장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마을의 40여 가구 중 15가구가 침수된 강원도 철원군 동막리 마을



호원고 부설 방송고 3학년 총학생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봉사자들과 군인들이 하나 되어 구슬땀 흘리며 열심히 복구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조금씩 원상복구가 되어가는 모습과 밝게 미소 지으시는 이재민들의 표정을 보니 보람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 호원고등학교 학생기자 한혜훈이었습니다.

학교활동 소개

졸업사진 찍던 날

박성복 | 황지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안녕하세요. 황지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학생기자 박성복입니다.

드디어 오늘 3학년들은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뻗거리며 입학식에 참석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 왔네요.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도 크답니다.



비록 적은 나이들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 못지않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고 일상생활에서 남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같은 날들을 추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저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 교복 입은 모습도 한 컷 찍어보고 체육관으로 교정으로 돌아다니며 예쁜 모습들을 담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찍은 사진들도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 또한 훗날 또 다른 추억으로 남겠지요.

비록 잠시 입어본 교복이지만 상기된 학생들 모습이 마치 유치원생 같네요. 서로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라니 아련한 옛 생각들도 문득 지나갑니다. 비록 학교는 다르지만 전국의 방송고 학생들에게 저희들의 부푼 마음을 전해 봅니다. 또한 이 소식지를 통해 3년간 헌신적으로 저희들을 살피시고 가르쳐주신 이종경 담임 선생님 그리고 각 과목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방송고 친구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27
보고싶어요! 선배님	29
사랑해요! 선생님	33

반갑다! 친구야

아름다운 만남

조월 학생 인터뷰

채만석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을 만나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15년 전 한국에 들어와 제주도 서귀포에 이중 언어 강사로 한국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방송고 학우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2학년 조 월입니다.

Q.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중 언어 코치 및 중국어 통역,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방송고 입학 동기는 무엇인가요?

A.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 한국을 더 자세히 배우려고 방송고에 입학 했습니다.

Q.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어와 부모의 나라의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가정이 한쪽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두 나라의 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및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의 프로그램 진행 및 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고향은 어디세요?

A.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한국에 온지 15년차입니다.

Q. 방송고 생활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주 여성에게는 한국 학교생활도 체험하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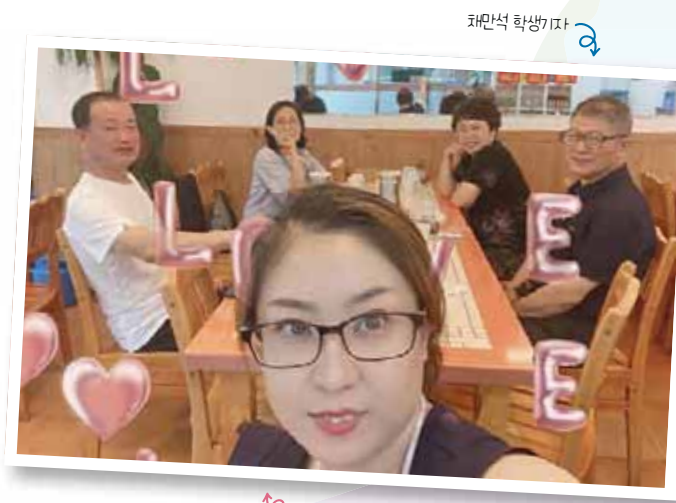
Q.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역사와 한문입니다. 한국역사 수업시간에 중국역사와 관련해서 수업을 해주셔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한문의 경우 중국어와 한국 한문 글씨로 쓰지만 뜻이나 사용하는 것이 다른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중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색다른 면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Q.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A. 방송고 졸업 후 여건이 된다면 대학에 진학 할 예정입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 학생



보고싶어요! 선배님

자랑스러운 학생회장님 인터뷰

황은규 학생회장

김연옥 |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안녕하세요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김연옥입니다.
단풍이 유난히 붉던 날 우리학교 전교 회장인 3학년 3반 황은규 선배님에게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Q.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중을 다니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는 가정 형편상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고, 울산 현대 중공업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현대 중공업에
다니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 근무도
하며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 켠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던 ‘배움’이란 단어가
세월의 아픔 속으로
스쳐가던 중, 우연히
방송통신중학교를 만나
못다 한 학업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황은규 학생회장님

Q.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중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우님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급식
제공을 위해 시청에 몇 번 건의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 1, 2학년
때는 없었던 점심 급식을 3학년에 올라와서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듯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자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기도 해서 부실하지만
점심은 매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곤 했는데,
올해부터 급식을 하게 되니 점심시간에
급식판을 마주하고 학우님들과 정답게 모여서
먹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한국교육개발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Q.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중을 다니면서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A. 늦은 나이라도 공부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배움의 길에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히 배우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Q. 학교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A. 2학년에 올라와서 전교 부회장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등교할 때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웃음을 지어주시는 학우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 수업이 끝나고 정문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면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회상에 젖기도 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 제 삶의 모토는 긍정의 마인드와 열정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의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 세월을 살았노라”라고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배움을 뒤로 한 채 공인중개사 일을 한자리에서 28년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 지킴이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도전과 열정, 끈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일은 없다”의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 배움의 길을 걷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감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긍정과 열정으로 살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학우님들 모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학업을 즐기시는 멋진 황은규 선배님,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한 인터뷰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선배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김연옥이었습니다.

보고싶어요! 선배님

배움은 늦지 않았습니다

류광석 선배님 인터뷰

조 광 흠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3반

안녕하세요.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학생기자 조광흠입니다.
우리 학교의 최고령 3학년 1반 류광석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Q. 선배님, 연세가 1932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89세이신데, 연세가 있으신 데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고에 진학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솔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많이도 겪었지요. 지금 회고(回顧)해보면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였을까? 대답은 너무나 세상의 동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혜가 모자란 탓인데도 그냥 살다보니 옳은 처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이 있잖습니까? 내가 한참 배워야 할 청소년 시절은 일제의 수탈과 우리들의

무지로 몸서리 칠 정도의 가난에 허덕이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던 때라 가정 사정으로 고교 진학이라는 꿈을 접고 중졸 학력으로 사회에 입문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다고 생각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은 너무 많았으나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고 생활 하던 중 우연히 우리학교 담벼락에 걸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모집 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80대 중반인 내가 배움을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생각도 했지만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입학 원서를 접수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Q.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접고 그 후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A. 중졸이라는 학력을 갖고 내가 시작한 직장이 말단 지방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60년대 당시 공무원 사회는 비교적 지식층에 속하는 계층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다 고졸 대졸이라는 학력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중졸이라는 나의 학력이 고비마다 나의 가슴을 찔었습니다. 배움이 적은 나의 식견과 시각은 업무수행에 늘 피동적이었고 전보(轉補)나 승진 시에는 꼭 부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이 작아 생각과 대처능력이 작기 때문에 늘 항상 내 마음은 배움의 끈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Q. 연세가 있으시지만, 앞으로의 꿈과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간과 건강이 걸림돌이겠지요.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차를 직접 운전하여 통학합니다만 신이 허락한다면 평생 동경하던 대학을 진학하여 문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평소 즐기던 일본 문학과 한문 공부를 더 하여 나 자신의 내공을 쌓고 자서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미로 즐기는 서예로 친우에게 감동적인 연하장을 꼭 찬글로 전하고 싶습니다.

Q. 선배님 마지막으로 동문 후배님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A. 우리는 지금 황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의식주 문제는 해결 된지가 오래 되었고 힘든 노동은 인공 지능을 가진 로봇이 해결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절실하고 배워야 합니다. 나 또한 고교에 입학 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배님들 부디 정진 하십시오.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꼭 진학 하셔서 내공이 짙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시고, 우리 모두 힘을 모을 것을 바라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하시는 후배님들 앞날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교장선생님과 인터뷰

임광섭 교장선생님

이상분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

안녕하세요.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상분입니다.
교장선생님 인터뷰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Q. 방송중을 신설한 계기는?

A. 홍성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방송고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너무나 즐겁게 학교에 등교하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 펼쳐 놓고 여고생, 남고생으로 돌아가 웃음꽃 피며 먹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각자 가슴에 품고 있는 사연이 있었겠지만, 이 날 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중학교로 발령 난 후 천안중학교에 방송중이 설립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방송고는 천안과 홍성 2곳에 있는데, 방송중은 천안에만 있기에 여기 홍성에도 설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자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 방송중을 신설하고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선생님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함께 어울려 맛있는 것을 드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꼭 선생님들 드시라고 챙겨오는 먹거리를 먹으며 그 정성에 감동하였습니다. 본교 어린 학생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한 정과 푸근한 마음과 진정으로 선생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대하시는 태도에 고맙고 감동하였습니다. 언제나 늘 그런 마음으로 생활해 주세요.

Q.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A.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학교에 오는 날이면 옛일은 모두 잊고 그저 14살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6학급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주도하기보다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행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방송중 입학을 원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A.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잠시 접어두었던 학업을 우리 방송중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 지금부터 공부 시작했다고’ 자식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어떤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학생은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는데 명함에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고 재학’을 크게 새겨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공부와 나이는 다르지만 마음만은 함께할 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중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Q. 방송중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말씀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 A. ‘정이 넘치는 행복한 배움터’입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면서 급우들끼리 서로 따뜻한 인사말을 나누는 모습과 손에는 친구와 선생님에게 줄 먹거리를 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에서 넘치는 정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머리를 감싸 안으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태도 같은 부분에서 이곳이 바로 ‘정이 넘치는 행복한 배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중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상분이었습니다.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36
수필	44
기행문	48
일상	52

노심을 울리는 비

장수원 | 천안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어제부터 내리는 비는
밤을 새우고 오늘도 하루 종일
내렸다 그쳤다 계속하였다

시끄러운 세상에
내리는 비마저 추적거려
노심을 슬픔에 젖게 한다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행복했던 시간보다 불행했던
시간이 더 많이 떠오른다

노년에 행복에 젖어보니
하늘이 질투하나 병마가 찾아와
내 곁에 머물러 떠나려 하지 않는다
어쩔 건가 친구로 삼고 살아야지

비야 내 상처를 씻어 주려 무나



희망으로 간다

이 상 분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희망의 소통입니다.

힘들면 멈춰버리고
주저앉은 것은
포기의 불통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오뎅이 인생

노력하는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퇴장

이 규 봉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새싹에서 자라나
세상의 풍파를 겪은
나뭇잎 하나도 아름답다

존재의 가치란
바라볼수록 애뜻하다

한때는 연 녹으로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들에
가을이란 석양빛이 앉았다

한때는 풋풋한
초록을 자랑하던 풀잎에
가을이란 찬 서리가 앉았다

퇴장이란 아름답다
퇴장은 또 다른 시작이다



가을 향기

이 화 숙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가을엔 향기에 취해 예쁜 단풍 앞에
고운 마음 접어 띄워 보낸다

가을엔 예쁜 사랑을 만들었어요
둘레길 낙엽을 밟고 걸으며

가을엔 소슬바람 흔들거리는
은빛 억새풀에 추억 실어 보내리

가을엔 그리움과 사색하여
분홍빛 엽서 띄워 보내리



금목서

마 영 남 | 목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우리들의 배움터
목포고등학교에는
우리나라 으뜸인
금목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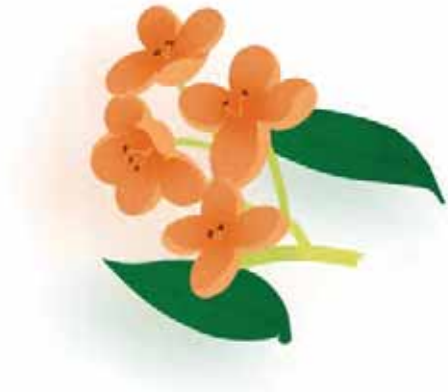
얼마나 크고 향기로운지
산이라면 백두산이고
봄날 천리향이
천리를 간다면
가을날 금목서 향기는
만리를 갑니다

계절이 풍성해져
목포 앞바다
전어들 뱃살에
은빛기름이 차오르고
색색의 국화들이 제 모습
자랑할 때 쬐이면

금목서 기운이
향기로 피어나
교정을 가득 채우고 넘쳐
먼 바다로 흘러갑니다

만선을 한 고깃배도
향기 따라오면
목포항에 이르르고
먼 곳 어디에서라도
목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목서 제왕이
목포고등학교 교정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월아

김은경 | 전남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2반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인지
 나무가 우는 소리인지
 쓸쓸하고 스산한 가을
 나도 가을이 되어가는구나

청명한 가을 하늘 올려다보니
 지상위에 고요한 바다 열려있네
 산과 바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도 그 자리인데
 가슴 속에 있는 말 무심히 내뱉어본다
 이 가을 지나면 내 머리 위에도
 하얀 겨울 오겠지

하늘아 구름아 바람도 나무도
 흘러가는 세월 붙잡지 못하니
 바라지 않는 깊게 패인 주름만이
 늘여가는구나



시골집 앞마당 이야기

나 금 숙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초록빛 반짝 반짝
무배추 새싹
힘차게 차오르고
부추 새싹 파릇파릇
빗물처럼 솟아오르네

녹색물결 연근잎은
개구리왕눈이
생각나게 하는데
비가 쏟아져도 젖지 않을 듯
넓디넓은 이파리 가득

검푸른 가지는
주렁주렁 속삭이고
그 옆 고추도
누가 질세라 덩달아 주렁주렁

엉성하게 넝쿨진
오이꽃잎은
벌써 늙어버려
노각으로 맺혀있네

담장 밑 대추한그루
풍성하게 더덕더덕 틈새 없이 열렸고
빨강게 익어가는 맨 꼭대기엔
달콤함이 가득하네
그 옆을 지나대문 앞
감나무 세 그루
뽕족뽕족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대봉은
이번 장마 태풍에 다 떨어져 마당 가득
땡감나무만 엉성하게 메달려 버티우네

뒤늦은 장미꽃 한그루
가을비에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예쁘게 피어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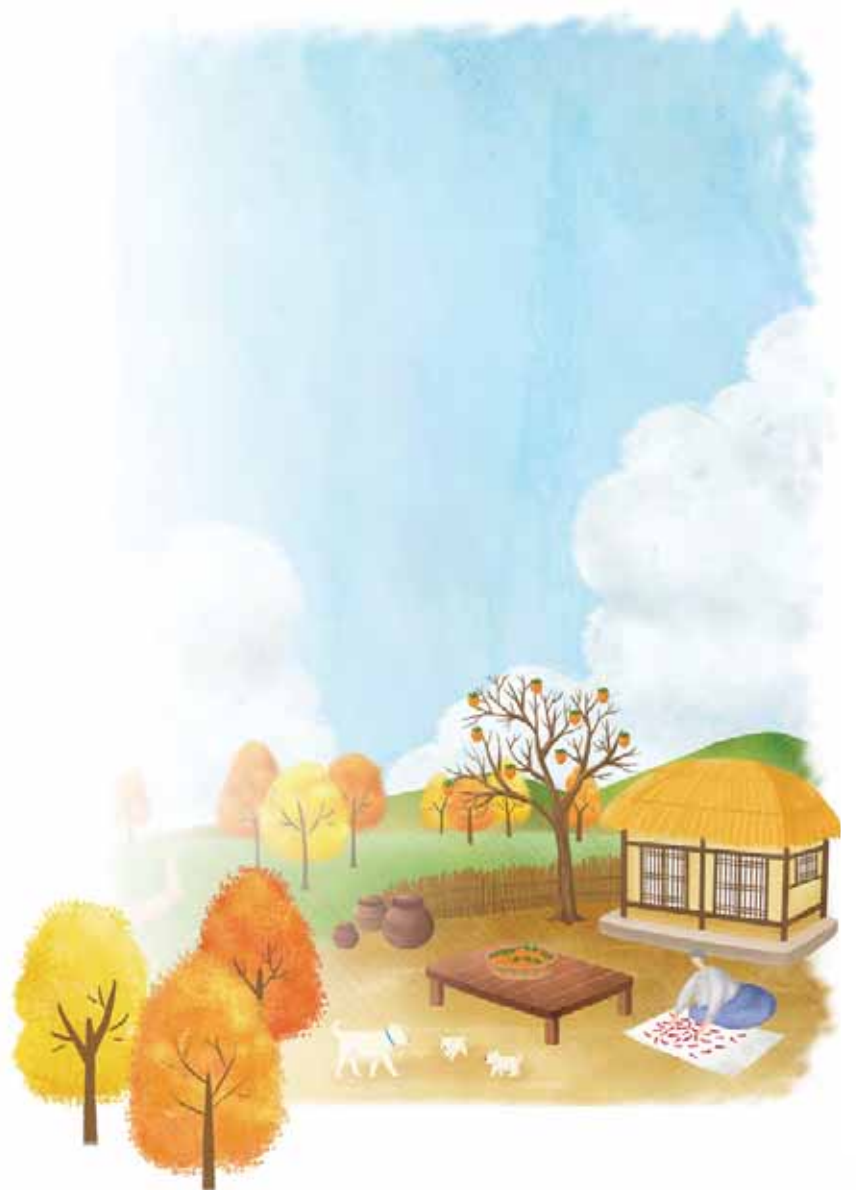
집 앞 들녘엔
태풍으로 쓰러져버린 쌀나무가
농부의 맘을 아프게 하고
간혹 관찮은 것들은
가을 들녘에서 노랗게 같이 익어가네



저 산너머 밤나무밭
 계속된 장맛비에
 아직도 벌어지지 않은 밤나무 밑
 엉성하게 하나씩 떨어진
 밤을 주워 바구니 담아보지만
 가족 먹기도 부족할 정도이네

비오는데도
 농부들의 손길은 바쁘기만하는데
 이 비가 언제 머질는지
 안개자욱한 시골 이곳에
 가랑비는 계속 내리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네

태양별에 곡식이 익어가듯
 코로나19도
 뜨거운 가을 태양아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길 간절히 빌어보네



지금부터 시작이야!!

최 동 순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예쁘게 물 들어가는 단풍잎을 바라보며 “참 곱기도 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계절 바람에 밀려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다. 잎은 피어나면, 자라고,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우리들은 한번 피어난 잎이 늘 푸르기만을 바라며 산다.

높이 피어오르다 미처 내려오지 못한 마지막 잎새 하나가 무섭다며 높은 가지 끝에 떨고, 있다. 머지않아 새해 새날이 돌아오고 우리들은 그동안 정든 교실, 정든 학우들과 헤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니 왠지 못내 서운하고, 아쉬운 생각이 든다.

3년 전 어느 봄날 우리들의 입학식을 환영이라도 해주듯이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고, 따뜻한 햇살을 비췄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어”란 표어 아래에서 정겹게 우리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입학식을 했다. 우리들은 낯선 교실, 낯선 학우들과의 어색함이 금방 친숙함으로 변했고, 돈독한 우정을 나눴다.

과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생각조차하기 싫은 가난의 굴레 속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서러움과 철조망도 없는 학교

정문을 “나는 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라는 생각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남들이 입고 다니는 멋진 교복을 바라만 보았다. 암울했던 시절에 흘린 눈물자국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처음 입학원서를 넣었을 때만 해도 “이제 시작하면, 언제 졸업을 하나”라는 생각때문에 입학이 망설여지기도 했었는데, 3년이란 세월이 참 빠른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입학식을 치르고 행복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며 공부를 하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알 수 없는 발음의 영어를 배우고, 듣도 보도 못한 방정식이며 함수에 빠져 허덕이기도 했지만, 하나씩 문제풀이를 해나갈 때에 그 마음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었다.

즐겁던 3년의 학교생활이 어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해냈다는 자부심에 우쭐한 마음도 생긴다. 이제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만 같다. 늘 배우지 못하여 허기진 배를 달래야 했던, 암울했던, 시절을 생각하며 배움이란 양식으로 영영 허기 지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지나간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보면,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았다. 함께 입학한 학우들과 우정을 나누며 넓은 체육관에서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와 현장학습을 통한 색다른 공부도 했다. 또한, 전국 학예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를 열심히 홍보하는 학생기자로서 전교생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서 중학생 시절의 또 다른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간직해왔다.

그동안 정들었던 교실과 같이 울고 웃던 학우들, 정든 선생님들 모두가 떠나가고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도 못내 크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나라를 펼치고, 더 높이 날아가기 위하여 새로운 날갯짓을 하며 하늘 높이 날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헤어짐은 아쉽지만, 또 다른 상급학교에서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으며 한층 성숙한 모습들로 변하여 만나는 날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늦게나마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관계자 선생님들과 저희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느라 수고해 주신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보고 싶은 아버지

장수원 | 천안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던 어느 날 밤 쏟아지는 장대 같은 비와 함께 전기가 나갔다. 깜깜한 어둠을 밝히려고 보일러실에 들어가 랜턴을 찾아 코드를 꽂았다. 환하게 밝혀진 랜턴을 등대 삼아 안방 청소기 전원과 주차장 코드도 꽂았다. 그리고 현관문과 TV 코드를 꽂고 전선 스위치를 올리니 환하게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새삼 전기의 고마움을 느꼈다.

사소한 것도 고마워지는 이 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사실 나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던 때를 떠올리면 고마웠던 기억보다 미웠던 기억이 더 많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사소했던 아버지의 사랑 하나하나가 생각이 났다. 또한, 미웠던 감정마저 그리움으로 바뀌어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한 것이 많은 후회가 되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나도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던 손주 녀석이 군대를 전역했으니 무심히 흘러버린 세월이 실감이 났다. 생전에 더 잘해 드리지 못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듣지 못하시겠지만,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여기에서나마 전하고 싶다.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가 많이 미웠어요. 학교도 못 다니게 하면서 일도 못한다고 때리시던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십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공부도 안 가르쳐 주시고, 학교도 안 보내 주셔서, 제 나이 칠십에 천안중학교 부설 방송중에 입학했어요. 열심히 학교생활을 했더니 곧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었어요.

아버지, 저는 살아온 세월 중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 손자 진욱이 아시죠? 학교에 가면 손자보다 어린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소리를 60여 년 만에 부르니 너무 좋아요.

비가 많이 내리는 풍경을 보니 오늘따라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떨어지는 비를 보며 나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아버지한테 부족했던 효도를 어머니한테 하며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지인한테 부탁해서 어머니에게 드릴 영양제를 사 왔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생전에 못 드린 말 이제는 할게요.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큰아들 올림



가평 자라섬에 꽃놀이를 다녀와서

이 영 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영자입니다.

초록빛 나무가 붉게 물들어가던 가을 어느 날 같은반 학우의 추천으로 자라섬꽃 정원으로 여행을 다녀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 이번 여행은 너무나도 기대되었습니다. 같은 반 학우들 모두가 함께하면 좋았겠지만, 급작스러운 여행이다 보니 결국 9명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춘천 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후 학우들을 만나 자라섬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펼쳐진 꽃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꽃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래간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꽃 정원으로 들어가는 학우들의 뒷모습이 들뜬 여중생들 같았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꽃구경 전에 부지런한 학우들이 점심도 직접 준비해 와서 오순도순 오두막에 둘러앉아 각자의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점심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에서 식사를 하니 맛이 배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꽃이 넘치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구경을 위해 꽃 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란히앉아 사진 한 컷! 액자 조형물에 나란히앉은 학우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같이 나왔습니다. 호수에 비친 햇살이 산의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경치 구경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형상화한 꽃밭에서 한 컷! 본격적으로 자라섬 꽃 정원을 둘러보는데, 한반도로 만들어진 각종 꽃들이 우리들을 반기며 많은 추억을 사진에 담아 가라고 예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꽃들로 가꿔놓으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반도로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거닐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꽃들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우리 학우들만큼이나 아름다운 꽃들을 어쩔 이렇게도 잘 가꾸어 놓았는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정원을 가득 채운 꽃들을 보면서 눈으로만, 담기에는 너무 아까워 다른 방송중 학우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정원을 거닐면서 동심으로 되돌아가 소녀처럼 즐거워하는 학우들을 보니 너무나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주신 분들을 위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짹짹~

꽃구경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한 컷! 학우들과 너무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헤어지기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오늘도 학우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아서 그런지 집에 오는 내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우들과 더 돈독한 우정과 추억을 쌓으며 멋진 나날들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영자였습니다.



춘천 의암호 수난사고 현장 자원봉사

이영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영자입니다.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탑승자 8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났습니다.

이 사고로 수상스키 업체 관계자와 민·관·군·소방 합동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 분은 댐 하류에서 탈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다른 분들은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도 춘천시 자원봉사 소속 시민으로서 수난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원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수색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에 안겨드리지 못한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힘닿는 데까지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며 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중 학생기자 이영자였습니다.



귀한 책을 선물 받았다

송 동 훈 |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종례 후 귀가를 서두르는데, 최홍근 학우가 두툼한 책을 내밀었다.

“책을 읽음이 내게 남긴 흔적들”이라는 긴 책 제목에 무려 400여 페이지의 A4 크기 양면 인쇄본이다. 본인이 “지난 10여 년간 독서를 한 흔적을 모아본 책”이라면서 “선물하겠다”라고 한다. 책을 간략하게 훑어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직접 900여 권의 책을 읽어내고, 그중에서 300여 권의 주요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직접 컴퓨터로 입력 교정하고 자비로 출간하는 지난한 과정이 적힌 머리글을 읽으면서 나는 가슴이 요동쳤다.

부족한 인문학적 소양을 극복하고자, 직장생활 틈틈이 밤잠을 설치가면서 진행한 그의 독서 기행에 걸려들지 않은 책은 없을 정도다. 목민심서, 조조, 삼국지 등의 역사소설과 국내와 해외 유명 번역소설은 물론이거니와 홍세화 수필집 같은 에세이류부터 묵직한 대하소설들 심지어 성경까지 읽어내고 있다. 주요 행간을

정리한 집념의 책 읽기 흔적을 보노라면 젊은 날 몇 권의 책을 겨우 읽고 독서가 취미라고 떠벌리던 내가 부끄러웠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책을 읽으면 좋은 문장은 메모해놓고 입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라고 한다. 독서를 통해 좋은 문장을



만날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한다. 메모하지 않는 책 읽기는 금세 잊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이 나지 않기에 쓸모가 없다고 한다. 책을 읽다가 만나는 좋은 문장들을 옮겨 적는 것은 허투루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관여하고 개입된 것이기에 진정한 내 것이 된다고 한다.

학우의 귀한 책을 받아 돌아서는데 가슴 한편이 아려온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책을 다수 읽었지만 정작 책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다. 나이 탓이라고 푸념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그때그때 읽고 흘려버린 탓이다. 경험상으로 봐도 메모 없는 글 읽기란 읽을 때만 위안이 될 뿐인 것이다. 그때그때 그 귀한 구절들을 적어가면서 독서를 했더라면 나를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가 오늘날 더 부드러워졌을 것이다.

그렇다. 읽고 돌아서는 순간 파편처럼 흩어져 버리는 알뜰한 책 읽기가 아니라 내 그리움 속에 알알이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 가볍게 튀어나와서 나를 위로해주는 독서생활을 해야겠다. 나의 버킷 리스트에 '메모하는 독서습관을 통한 책 출판'을 넣어야겠다.

<끝>



05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소식1

2020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교장·교무부장) 협의회 정기 총회 및 워크숍 개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관계자(교장·교무부장) 협의회 정기 총회(5~6월) 및 워크숍(10월~11월)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서면결의로 대체 진행하였다.

소식2

2020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협의회 개최

지난 7월 9일 한국교육개발원 소회의실 3A, 5A에서 방송통신중·고 사이버교육시스템 화상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2020년도 방송통신중·고 사업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강성국소장 외 센터 직원이 참석하여 임원진 선출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사업의 계획들을 논의 하였다.

소식3

방송통신중·고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및 배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중·고 학생 및 교직원 16,770명, 603학급을 대상으로 KF80 마스크와 제균티슈를 지원하였다.

※ KF80 마스크 : 개인당 30매, 학급당 20매 | 제균티슈 : 개인당 1팩, 학급당 14팩

소식4

방송통신고등학교 ‘나의 미래길잡이(나래자비)’ 프로그램 운영

지난 7월부터 방송고 ‘나의 미래 길잡이(나래자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고 재학생들의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 대인관계, 진로 로드맵, 진학 상담 등을 주제로 하며 전국 42개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소식5

방송통신중학교 ‘자기이해 프로그램(성격유형검사)’ 운영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중학교는 ‘자기이해 프로그램(성격유형검사)’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인관계 속 갈등 상황 대처 능력 향상, 학교 적응력 향상, 긍정적 자아존중감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24개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기존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성격유형검사)’은 학교로 방문하여 성격유형검사와 검사 결과 해설을 진행하는 형태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성격유형 검사 및 검사 결과 해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소식6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운영

지난 8월부터 방송고 학습경험 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기졸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신청학교에 한하여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소식7

2020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찾아가는 ICT 교실」 운영

2020학년도 「찾아가는 ICT 교실」이 방송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 진행 시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찾아가는 ICT 교실」은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ICT 기기의 기초 활용법과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의 학습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작동 방법, 윈도우 및 브라우저 사용 방법을 익혀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총 3회차로 진행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 ICT 활용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시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원격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식8

방송통신중·고 종합상담 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지난 10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 1층 가변형 회의실 2A, 2B에서 WYP교육컨설팅 박원영 대표를 초빙하여 방송중·고 종합상담 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유경희 팀장 외 35명이 참석하여 전화 커뮤니케이션 화법 및 태도, 경청 방법과 주의 사항, 감정소진을 예방하는 감정노동의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06

홍보 웹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59



U-반딧불 홍보 만화 01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



과거에는 생계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했던 청소년 학생들이 많았다면

1974년 연령별 학생 분포

연령대	학생 분포
청소년	높음
중·장년	낮음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 42개에 있고,

지역	학교 수
강원	7
인천	2
서울	5
경기	5
충남	2
충북	2
대전	2
경북	4
전북	2
대구	1
울산	1
광주	2
경남	2
부산	2
전남	2
제주	1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졸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령별 학생 분포

연령대	학생 분포
10대	높음
20대	중간
30대	낮음
40대	중간
50대	가장 높음
60대 이상	낮음





소식지에 게재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학생기자 및 작성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 동의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외에 기사가 게재된 않았지만 소식지 제작에 협조해주신 모든 방송중·고 선생님, 학생 및 학생기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 개발·기획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팀 / 편집 및 디자인 디자인팀 | 031)893-8318